



결핵관계자로서 뿌듯함을 느끼고 돌아온 중국 방문

글 김규환(본부 검진과장)

TV 역사드라마가 중원을 무대로 주몽, 연개소문, 대조영이 방영되고 중국에서는 고구려 및 발해 역사 일부를 자기네 역사라고 주장하는 시기에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95년부터 한·중 자매결연을 맺은 후 계속된 친선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임영재 대전·충남지부 복십자의원장, 강창수 제주지부 사무국장, 이형기 광주·전남지부 검사과장, 백은주 부산지부 관리과 주임 그리고 필자 등 5명이었으며, 방문기간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중국인 통역于여사와 방노협회 직원들의 배려로 오래도록 추억에 남을 즐거운 여행이었다. 여기에서는 방노협회, CDC(질병관리본부), 결핵연구소 및 결핵실태와 북경시 주변의 관광명소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 방노협회(Chinese Antituberculosis Association)의 역할

입국한 날 오후에 방노협회 蔣부비서장과于여사의 안내로 방노협회를 방문하여 결핵현황과 주요사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방노협회는 중국전역의 결핵관리자 및 연구자들이 학술관련 법인단체로 1933년에 창립하였는데, ① 중국 전지역 언론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② 국제학술교류사업을 주관하며 ③ 국내의 잡지출판 업무 ④ 학술연구와 결핵관리 기술자문 사업 등 결핵퇴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처럼 전국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전혀 없고, 지부회원비, 과학기술협회 지원금, 결핵약생산공장 지원금, 잡지출판 수익금 등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국가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협회재정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로 내년에는 낙후된 현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CDC의 DOTS(복약확인 단계요법)

도착 다음날 CDC 방문을 안내하기 위해 于여사와 함께 온 王부위원장은 내가 결핵연구원 근무 당시 결핵관리 연수차 방문하여 소주 한 잔 나누는 적이 있어 무척 반가웠다. 일행이 도착한 CDC는 우리나라 아파트형 건물이어서 굳게 닫힌 철문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공공건물임을 새삼 느끼게 해 주었다. 중국 보건부 소속 CDC의 成주임의사의 인사로 시작된 중국의 결핵관리 주요내용은 국가 결핵관리를 중장기로 나누어 새롭고 과감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 일행이 가장 놀란 것은 2005년도에 DOTS를 100% 달성한 것인데, 담당 의료진과 가족이 보는 장소에서 결핵약을 100% 복용한다는 것은 감히 우리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었고, 치료율(91%)과 환자발견율(79%)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은 감염율은 높으나 결핵에 관한 관심저조로 환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의 기피로 결핵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TB/HIV와 MDRTB 환자가 우리나라처럼 증가하는 추세이고, 신환발생은 우리가 20대에서 높은 데 비하여 중국은 35세와 60대에서 높았으며, 비시지는 자체 생산하여 의무적으로 접종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 및 지방정부 등 결핵퇴치기금의 대폭적인 증액지원으로 2006-2010년도에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결핵전문병원 설립, ② 도말양성 접촉자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③ NPT(국가 중장기 결핵관리 계획)수행을 위한 지침 재정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경시 결핵병 흉부종류 연구소와 병원

출국 전날 방문한 결핵연구소(보건부 소속)는 북경시 동부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위에서 보면 건물이 비행기 모형으로 보이는데 1956년도에 건축당시의 모습을 거의 보존하고 있었으며, 내년에 재건축 계획이 있다고 한다. 연구소 설립 당시에는 전국 최고 의사들로 구성되어 의료분야 인재양성과 결핵연구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결핵관리 연구를 하였으며, 보건부에 CDC가 신설되면서 최근에는 폐결핵, 폐암, 척추결핵, 호흡기질환에 관한 임상연구와 전문 의료인 및 박사 양성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2000년도에 실시한 제4차 전국결핵실태조사 결과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이 있었다. 정부 재원이 부족하여 실태조사비와 치료비용을 세계은행 등에서 지원받았고, 전국 31개성 중에서 2개성은 WHO 처방실험이 종료되었으며,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9개성에서만 WHO 기준처방을 무료로 실시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 재정형편에 따라 개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결핵관리와 실태조사 등 많은 부분을 우리 결핵연구원에서 배웠다고 고위 당국자가 솔직히 말할 때는 자랑스러운 기분마저 들었다.

북경주변의 관광명소들

천단공원과 만리장성 도착 다음날 북경시 남쪽에 위치해 있는 천단공원을 방문했는데, 이곳은 명·청시대에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한다. 아쉬운 점은 입구부터 대표 건축물인 기년전까지 들어가기 위해 입장료를 3번이나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황제가 오곡이 풍성하기를 기원하던 제단인 기년전은 1420년에 완성되었고 높이가 38m나 되는 오색찬란하고 웅장한 건축물인데, 못을 한 개도 쓰지 않고 지었다고 하니 그 당시의 과학적인 건축기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음날 우리나라 시골풍경과 비슷한 강산을 한 시간 여행한 후 만리장성을 오르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용에 감탄하기보다는 기원 전후 태평천국시대부터 진나라까지 제왕들에 이끌려 피와 땀으로 노역했을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다. 만리장성의 실제거리는 12,700리로 5,000Km인데 이는 남북한 길이의 4배에 해당하는 대단한 거리여서 “달에서도 볼 수 있는 인공건축물” 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란 수식어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화원과 고궁박물관(자금성) 거대한 만리장성을 뒤로한 채 우리일행은 청나라 때 신분을 속이고 궁궐에 들어가 나라를 도탄에 빠뜨렸던 서태후의 별장, 이화원을 방문하였다. 아무리 큰 중국이라지만 개인별장의 인공호수를 그렇게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는데, 이 호수에서 나온 흙으로 옆에 인공산을 만들었다고 하니 한 여인의 허황된 사치의 극치를 보는 듯하여 씩씩했다.

출국 전날에는 중국 민주화의 성지라 여겨지는 장엄한 천안문을 찾아 고궁박물관(자금성)을 관람하였는데 2008년 북경올림픽 관광객을 위한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었다. 자금성은 규모가 너무나 커서 자세히 관광하려면 하루가 걸리고, 무려 9,999개의 방으로 이루어져서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한다.

4박 5일 여정 동안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의 인연은 가장 중하고 귀한 것임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돌아왔다. 우리나라가 거대한 중국에 무시당하지 않고 국가발전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며, 이번 방문에 배려해주신 대한결핵협회 및 방노협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사를 드린다. 卍